

# 1과. 교회의 본질: 래디컬

## 하나님 마음 알기

### -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래디컬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힘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힘을 가지는 순간 복음의 효과도 말씀도 사라진다. 래디컬 체인지란 세상 기준에 찌들고 물들어 갔던 신앙에서, 오로지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자랑하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에게 돈을 주지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 그들은 복음 하나로 충분한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한 마디로 정의하면, 근본적으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힘보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됨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은 인간적인 노력이 불가능한 곳, 즉 가난해지는 곳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급진적인 신앙의 결단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 근본적인 신앙으로 회복될 때 삶은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 - 박제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라

박제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래디컬 체인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자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신앙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믿음,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두 번째는, 듣기 좋은 설교에서 바른 설교로 변화되어야 한다. 선포되는 말씀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희석되어서는 안된다.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은혜, 인간의 죄성, 하나님 나라와 구원 등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이지 않은 제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어디 소속, 어느 교단, 제도 등에 분주히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만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박제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 가라고 명령하신다. 창조주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목적에 철저하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yeast minority'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누룩이 된다는 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기꺼이 자신이 반죽에 녹아 없어지지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여 이롭게 하는 것이다. 누룩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큰 것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룩의 삶은 이처럼 손해를 기뻐하는 삶,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삶, 선을 위해 협력하는 삶, 은혜를 누리기 위해 손해를 넘어 고난을 달게 받는 삶이다. 교회가, 교회의 한 지체인 내가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 하나님 마음 찾기

1. 세상 기준에 찌들고 물들어 갔던 신앙에서, 오로지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자랑하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근본적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한 래디컬 체인지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2. 박제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래디컬 체인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답장 뛰어넘기

1.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은 인간적인 노력이 불가능한 곳, 즉 가난해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상이 되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았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2.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룩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역지(교회, 가정, 직장, 세상)에서 내가 감당 할 누룩의 삶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제목